



손병화의 로고시즘(Logos-ism), 그 회화적 감동과 힘

## 말씀의 현장에 우리를 세우다

글 오익석 조각가, 대구기톨릭대 조형예술학부 교수, 동 대학 MF 지도교수

화가 손병화는 말이 적다. 수 년 전, 그의 화실에 몇몇 지인들이 모였을 때, 누가 주인인지를 알기 어려울 만큼 손님 의 한 사람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켰던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난 봄 그가 나의 작업실을 찾았을 때도 역시 그러했다. 오래전부터 그는 침묵의 힘을 터득하고 있는 것일까? 손병화는 말을 아끼는 대신 작업과 그림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림으로 전하는 이야기들은 무겁고 진지하며 그 형식은 매우 독특하고 힘이 있다. 손병화의 그림을 대할 때마다 가슴에 뭉클한 무엇이 치솟아 오르곤 했다. 그러나 그 감동의 실체를 글로 풀어내려는 노력은 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처럼 손병화는 내게 어려운 작가였다. 그의 그림이 지닌 무게를 감당하기가 벅차고, 작업 의 진지함이 빚어 놓은 작품의 두께를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다시 기회가 왔다. 그의 그림을 대 면한다. 큰 산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작가가 캔버스에 말씀을 담아낸 작품들이다. 화면 속의 인물들 앞에서 오 늘도 나는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



한 제자의 통곡, 손병화, 90×50cm, 유화

#### 손병화

계명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대구시전 최우수상 및 특선,  
상파울로 비엔날레 한국의 미 특별전, 시도 미술대전 수상작가 초대전(문예진흥원)  
한·중·일 3국 미술교류전(대만), 국제Art Comet 전  
한국기독교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 한유회 회원

#### 한 제자의 통곡

한 제자가 울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저 따라 울고 싶을 뿐이다. 고개를 들 수가 없다. 화면 밖으로 뛰쳐 나가고 싶은 듯 그는 중심에서 이탈하여 등을 돌리고 있다. 얼굴과 주먹을 친 손, 그리고 거친 머리칼..., 작가는 인물의 많은 부분을 생략하였다. 카메라의 렌즈로 대상을 담겨온 것처럼 인물의 핵심적인 부분만을 화면에 부각 시켰다.

극명한 명도 대비를 통해 화면은 둘로 나누어져 있다. 빛과 어둠이 이웃하고 있다. 한편에서 닳아 울고 여명이 밝아 온다. 그러나 등을 돌린 채 울고 있는 제자에게는 여전히 어두운 밤이다. 부인과 배신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그 통한의 눈물을 삼켜본 사람들이라면 그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중에도 제자의 등을 비추는 강한 빛이 있고, 그의 머리카락과 얼굴에 위로부터 비쳐지는 강한 빛의 흔적이 있다. 통화하는 그가 버림받지 않을 것임을,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이 빛에서 확인한다. 그것은 어둠 속의 제자에게 한 줄기 희망이다.



죄사함, 손병화, 114×42cm, 유화, 2008

#### 용서를 구하는 한 여인

서 있는 남자, 엎드린 여인, 멀리 둘러선 한 무리 사람들,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긴 화면에 많은 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부끄러운 죄가 무리 앞에 공개적으로 폭로되고 집단적인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죽음 앞에 직면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림 속의 여인은 죽은 듯이 땅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한다. 몸의 대부분을 화면 밖



으로 숨기고 있다.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 싶은 여인의 사정을 화가는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있음인지도 모른다. 그 여인의 맞은편에 서 있는 이가 있다. 그가 옷자락 하단과 드러낸 발만을 화면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깊은 배려일 것이다. 지금 여인의 살고 죽는 것이 바로 그에게 달려 있다. 위기의 순간이다.

이 긴박한 현장을 포착해 내는 작가의 시점은 거의 땅바닥에까지 낮아져 있다. 그 낮아진 위치에서 여인의 가늘고 긴 손에 초점을 맞추었다. 앞에서 서 있는 이를 향하여 필사적으로 뻗혀진 여인의 손에서 간절한 절규가 들리는 듯하다. 그 손으로 인해 화면 전체에 긴장이 감돈다. 과연 그녀는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멀리 원경에 자리하는 검푸른 빛깔의 건물은 권위적으로 보이며, 그 앞의 무리들은 이들에게 냉소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배경과 구별된 중심인물의 주위에는 빛이 있다. 그 빛의 기운은 땅에서 피어오른 것처럼 이들을 감싸며 번져간다. 이 자리로 여인을 끌고 온 어둠의 무리들이 힘을 잃고 희미하게 사라져 간다. 아웃포커싱 된 원경의 처리에서 여인에게 임할 용서와 해방, 그리고 자유가 넉넉히 감지된다.

#### 나무에 달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있다. 그의 몸은 나무의 일부처럼 거칠다. 주위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배우고 따르던 제자도 용서 받은 여인도 그를 조롱하며 짐승처럼 학대한 무리도 청회색의 어두운 배경 속에 모두 파묻혀 있다. 고독과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는 정말 버림을 받은 것인가?

화가는 세트장의 고공에 설치된 카메라처럼 높은 곳에 올라서 이 장면을 내려다본다. 그 곳은 초월자의 시점이고



예수 그리스도, 손병화, 110×60cm, 유화, 2008

전능자의 시점이다. 나무에 달린 그를 위에서 지켜보는 유일한 한 시선이 그림 속의 희망이다. 화가는 그 희망을 몇 줄기 빛의 흔적으로 화면에 담았다. 머리에 씌워진 관에서 몇 개의 가시가 황금빛을 발하고 있다.

그림 앞에서 우리의 설자리를 찾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어둠의 배경 속에 숨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화가가 안내하는 자리로 함께 올라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 아픔의 현장을 대면하고 그 안에서 구원과 희망의 표적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나무에 달린 한 사람을 대면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 감동의 그림이 던지는 질문

화가 손병화가 말씀 속의 인물들을 바라보는 시점은 매우 다양하다. 땅바닥까지 몸을 낮추어서 대상을 보거나 하면, 때로는 고공에 설치된 카메라처럼 높은 시점에서 내려다보기도 한다. 그리고 부분을 클로즈 업 시켜서 전체 인물의 성격과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극적 상황의 연출을 통해 작가는 우리를 말씀 속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어 간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는다. 그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당신은 누구인가?

전체적으로 무겁고 거친 무채도의 그림이지만 중심인물 주위에는 예외 없이 생기를 주는 색채가 묻어나고 있다. 그 주위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거나 위로부터 비추어 내린다. 그의 그림들은 어둠과 절망적인 상황에 주목하는데 머물지 않고 늘 한 줄기 희망이 있음을 암시해 준다. 그 희망의 빛 속에서 우리는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임하는 구원과 생명의 소식을 감지한다. 이것이 손병화의 회화가 주는 감동이고 힘이다.